

# 밤하늘 별빛 아래 책에 빠지다 “수행·교화 화두로 정진할 터”

## 금산사 책임기 장려 템플스테이

산사에서 밤을 지새며 책 읽고 토론하며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10월 마지막 밤 금산사 서래선원. 간간이 책장 넘기는 소리가 깊어가는 가을밤 산사의 적막을 갈랐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10월의 마지막 밤인 31일 '산사, 책속에 빠지다'를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금산사가 전라북도 책임기운동본부(상임대표 박규선)와 함께 '올해의 독서운동'의 첫 번째로 마련한 행사에는 교수, 교사, 학생, 기자, 사업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설진강 시인으로 알려진 김홍택 시인의 특강과 작은 음악회가 금산사 서래선원 아궁이에서 장작불로 구워낸 고구마, 밤 등 각종 먹거리와 어우러지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풍성하게 했다.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책을 읽는 것은 궁극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전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항상 존제하는 것은 없다는 무상의 도리를

깨닫고 편견에서 벗어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규선 상임대표는 "하루 8시간 이상 책 읽는 빌 게이츠나 이순신 장군처럼 책 속에서 진리를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 책임기운동본부 진기봉 이사장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자연스럽게 지성미가 밖으로 표현된다"면서, "이러한 책 읽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 동참자들의 호응은 폭발적이었다. 최환희전(서전주중2)군은 "도심을 벗어나 역사 깊은 금산사에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며 책 읽는 것이 즐겁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미경(전주 서신동·46)씨는 "가을 밤 집에서 독서하는 것도 색달랐지만 무엇보다 눈에 가을을 가득 담아 돌아갈 수 있어 기쁘다"고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진산식 11월 2일 봉행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진산법회가 백양사 단풍축제 속에 11월 2일 백양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했다.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진산식에서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은 "예로부터 백양사는 도인이 가장 많이 나온 으뜸 도량이다. 신임주지를 중심으로 사부대중이 화합해 수행정진에 매진하는 총림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시몽 스님은 취임사에서 "근대불교의 큰스승 만암 스님 유지를 이어 받아 수행과 교화의 화두를 가슴에 안고 정진하고 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취임을 기념한 시도 읊었다.

"마루에 가득한 높은 손님들 동쪽 서쪽에 모두 왔는데(滿堂高友盡東南) 천리의 험한 길을 뚫고 백암산(白巖山)에 모였구나(千里間關此處參) 우리 모두 나그네라 위로할 것 없나니(具足客中無所慰) 다만 찻잔 들고 그대에게 석 잔 권하네(只將茶碗勸君三)." 주지 진산법회 후에는 '백암산 백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진산법회가 11월 2일 백양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했다.

양사 야단법석 쟁계루의 추아몽'을 주제로 단풍축제가 이어졌다. 진산식 전날 밤에는 '바위섬'을 부른 가수 김원중, '망부석'을 노래한 김태곤 등이 출연한 산시음악회가 열렸다. 2일 진산식 후에는 성보박물관 특별전시회, 아름다운 나눔마당이 열렸다.

쟁계루 앞에서 열린 나눔의 장에는 백양사 스님과 함께하는 단주만 들기와 페이스페인팅, 달마그려주기

등 무료체험과 함께 JTS,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의 캠페인도 진행했다. 성보박물관에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큰스님 만암 스님과 서용 스님 유물 전시 및 백양사 성보의 전시가 진행됐다. 특히 달빛결기는 장성지역 4대종교 지도자들과 각 종교 신도들이 전통등을 들고 걷기 명상을 하며 종교화합에 대한 이야기 마당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삼존불 봉안법회 봉행

### 천태종 금광사 11월 5일

천태종 금광사(주지 설래)는 11월 5일 삼존불 봉안 및 대웅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천은 스님(대흥사 조실), 정산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천태종 종의회의장), 전주언 서구정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용 스님은 "보라, 거룩하신 삼존의 부처님 육체의 금색광명 빛고을에 가득하니 삼천세계 무명번뇌 어둠을 깨뜨리고 큰 가피 무량공덕 종도들과 함께 하네. 거룩하시라, 능인적멸 저 부처님. 백가지 복으로 장엄하셨다. 금광 도량 좋은 자리 장엄하게 나누시니, 만 중생 환희하는 상서로운 귀의처로다"라는 법어를 내렸다.

설래장 스님은 개식사에서 "빛고을 광주에 상활원각 대조사의 깊은 뜻을 실천해 호남불교의 새 힘을 불어넣겠다"며, "기도와 정진을 통해 지은 업장과 마음의 묵은 때를 씻을 수 있는 참다운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국청사 500만원 기탁

### 고창복지관 후원 약속

경기 광주 국청사(주지 선길)는 11월 5일 복지기금 500만원을 고창종합복지관(운영위원장 법만, 관장 무궁)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복지후원금 500만원은 국청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관광객들에게 국수와 어묵 등을 팔아 조성한 기금이다.

후원금을 기탁한 국청사 주지 선길 스님은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은 큰 인연이며, 이 인연을 앞으로 계속 이어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인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국청사 신도들의 후원금은 자비와 나눔이라는 부처님의 큰 뜻을 불자 스스로 실천한 수행공덕"이라며 지역복지에 뜻을 함께 한 많은 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복지후원금을 기탁한 국청사는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말사이다. 기탁된 복지후원금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복지기금으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음악놀이·우리문화 골든벨 '신나네'

## 광주·익산 파라마이타 행사 열려

호남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잇따라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파라마이타 청소년협회(지회장 도제)는 11월 2일 금호 유스퀘어에서 '제6회 파라마이타 광주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1000여 명의 시민과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경연대회는 광주 지역 23개 중·고등학교(팀)가 참가해 예선을 치렀다. 본선에는 12개팀이 실력을 겨뤘다. 모두 7개팀이 수 상한 시상식에서 대상(광주시장상)은 전남공고 랩팀 '재퍼리'가, 교육감상은 불교종립 정광고 밴드팀이 차지했다.

경연에 앞서 도제 스님은 대회사에서 "우리나라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있다. 청소년들이 밝고 활기차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미래는 긍정과 밝음으로 활짝 열

릴 것"이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문화의 장을 펼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파라마이타 청소년협회(지회장 김영목)는 '제4회 우리문화 바로 알기 도전 골든벨'을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겨룬 행사는 1일 익산 영등초등학교 강당에서 전북도 내 중·고생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를 후원한 익산사안연합회 회장 지광 스님, 관운사 덕림 스님, 자명사 영명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금산사, 송림사, 백운사, 태봉사, 용화사, 익산신도연합회(회장 박중근), 대원회(회장 문여주) 등 지역사찰, 신행단체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예선은 중등부와 고등부



익산파라마이타는 11월 1일 '우리문화 바로 알기 도전 골든벨'을 개최했다.

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각 예심을 거쳐 본선에 출전한 학생들은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된 행사에 따라 국어와 고전문학, 한자, 속담, 민속, 전통윤리, 불교문화재, 지역문화재, 불교문화와 사상 등 우리 전통문화와 관련한 문제를 풀었다.

전라북도 교육감상을 받은 1등은 고등부는 김태희 학생(이리 남성여고1), 중등부는 이인하 학생(이리 남성여중3)이 차지해 장학금 각 30만원씩을 받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전북경찰청 경승실장 남고사 원혜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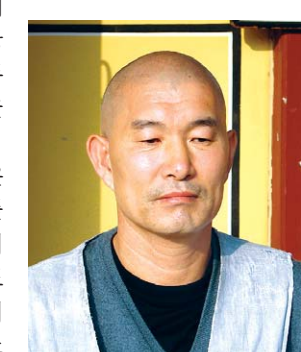
# 운불련·경찰불자 아낌없이 지원

가을 정취가 무르익은 전주 고덕산의 만산홍엽을 이룬 숲길을 걸다보면 후백제 견훤 대왕이 축조했다는 남고산성이 위용을 드러낸다. 산성 위 가을 옷 갈아입은 나무 사이로 신라 문무왕 6년에 명덕 화상이 창건한 남고사가 살포시 고개를 내민다. 전라북도 경찰청 경승실장 소임을 맡은 원혜 스님(사진)이 주석한 사찰이

사람들 의식수준은 높아지고, 타종교의 선교는 갈수록 거칠고 공격적입니다. 이에 반해 불교계 노력은 미약합니다."

스님은 공직자들에 대한 포교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5년 창설한 전라북도 경찰청 경승실장을 맡았다. 법당이 없는 경찰청을 위해 남고사 법당부터 선뜻 경찰 불자들을 위해 내했다. 원혜 스님은 경승단장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과 지역 경승을 맡은 스님들과 함께 경찰 불자들을 위해 정기법회, 경전 공부를 비롯한 자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민중화와 더불어 경찰에 대



한 이미지가 좋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경찰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총수의 종교관향 정국과 맞물려 경찰 불자들의 사기가 떨어져 안타깝습니다."

스님은 "경찰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회의 사천왕"이라며, "딱딱한 이미지가 벗어나 부드럽고 따뜻한 이웃이 되도록 항상 정진하며 부끄럼 없는 불자경찰이 돼 달라"고 지도하고 있다.

"대부분 휴일을 이용해 열리는 법회 도중에도 급작스런 전화 연락에 자리를 떠나는 경찰불자들을 보면 경찰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업무에 지친 경찰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일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전북지역 각 경찰서마다 불자회가 창립되고 경찰불자들이 가장 모범적인 불자로 인정 받는 것이 바람"이라며, "각 경찰서마다 법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고목스님의 책들

**新 유식학(보정판)**

삼라만상이 오직 식(識)일 뿐이어서 마음을 알면 자연히 세계를 알게 된다.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명상, 그 푸른 눈의 지혜**

명상의 기본원리와 비바사나, 요가명상 등 실용성 높은 생활명상법 수록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아가는 철학적 사유와 禪……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는가?

고 목 지음

**금강경 최상승해(근간)**

차별화된 최상승의 해설. 현대인이 반드시 읽어야 할 영원한 진리의 보고(寶庫)

고 목 지음

**화두(話頭) 이야기**

말법시대와 나누는 화두(話頭) 이야기

고 목 지음

**화두(話頭) 이야기**

말법시대와 나누는 화두(話頭) 이야기

고 목 지음

**화두(話頭) 이야기**

말법시대와 나누는 화두(話頭) 이야기

고 목 지음

옛부터 조사(祖師)들은 '삶이란 억만겁의 향상으로 가는 것'이며 향상의 여정에서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했다.

- 머릿글 중에서 -

**고목 지음**  
도서출판 밀양

신국판 464쪽  
₩16,000

저자 연락처 : 055-353-6142, 010-2356-6142